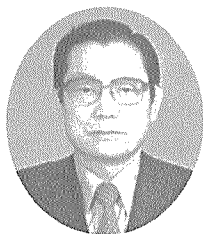


— 일본 나고야 FOKUO 의학 연구소 방문 —

일본 건강검사의 현장을 찾아서



문 익 수

〈건설본부사업1과장〉

우리 협회의 국제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필자와 대구지부 이 동춘씨가 나고야 공중의학 연구소로 1주일간 의료연수를 떠나게 되었다.

2월 28일 오후 5시 30분,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KAL 768기에 탑승하였다.

여객기는 초봄의 석양 속에 꼬리를 한 바퀴 틀더니 은빛 날개를 번쩍이며 힘차게 이륙하였다.

약 1시간 30분후, 작은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찬란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비행기는 나고야 공항에 사뿐히 착륙하였다.

소정의 입국 절차를 마치고 출구를 통과하니 연구소에서 가토(加藤) 총무부장과 모리다꾸(森澤)씨가 피켓을 들고 나와 이국 땅을 밟는 낯선 손님을 반기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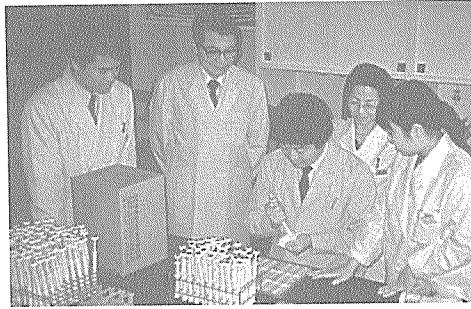
우리 일행은 마이크로 버스에 몸을 싣고 약 20분간을 달려서 예약된 푸리스 호텔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었다.

호텔의 소재지 다이꼬조(太閤町)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서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29일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5시 30분에 기상하여 호텔의 인근 지역을 산책하였는데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의 풍경과, 주택의 울타리를 산뜻하게 단정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서울의 가로에서는 보기가 힘든 만개한 동백을 대하니 이국의 정취가 가슴을 파고 들었다.

8시 30분, 정식으로 나고야 의학 연구

▶ 자궁암 자기 채취기의 사용을
점검하고 있는 일행



소를 방문하였다. 연구소는 건평이 약 300평 정도의 4층 건물로 우리 협회 전 남지부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었고, 종사인원은 약 40여명으로 그중 25명의 의료기술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었다.

전직원 월요초회 석상에서 우리가 소개되었고, 준비해 두었던 인사말을 하니 박수로써 환영하여 주었다.

우리 협회 사무총장님의 친서를 가토(加藤) 이사장에게 전달하고, 가토 총무 부장으로부터 연수교육 일정계획을 브리핑 받고, 우리 협회의 88년도 자궁암 자기 채취기 소요량을 유인물과 함께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연구소의 시설견학을 하였는데, 그들은 부속의원의 검진을 인간도크(Dock)라 칭하며 집단이동 검진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형 검진차량을 5대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는 27년의 전통과 성인병 예방사업만 하여도 15년간의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각 분야별 검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었고 그 분위기가 매우 안정적이었다.

특히 각종 암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안압검사도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세포학 검사실에 배속되어 준비된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니시마사(西正) 실장에게 지참한 표본을 전달하고

그의 안내와 지도를 받았다.

가토식 자궁암 자기 채취기에 의한 가검물 접수부터 결과 통보과정을 실습하고 하오 5시에 첫 날의 일과를 마쳤다.

연수 이틀째, 3·1절의 아침을 과거 침략국의 땅에서 맞이하게 되니 여느 때와 다른 의미와 만감이 교차되어 심정이 착잡하였다.

이제는 주권국민으로서 세계시민의 자격으로 이 숭고한 국경일을 기리게 된 것이 순국선열의 희생의 보상이라는 생각에 의연히 마음을 가다듬고 조국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니 봄비가 축축히 내리고 있었다.

지다시(知多市) 주민의 유방암 이동 검진을 위하여 야스오까(安岡) 검사부장과 8시 30분에 연구소를 출발하여 약 40km의 길을 달려 현지에 이르니 대형 검사차량이 이미 도착하여 접수가 진행되고 있었다.

수검은 140명에 달하는 40대 초반 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검진 수수료는 시 당국과 본인이 각각 반액씩 부담한다고 한다.

검진반 접수대 옆에서는 나고야 적십

자사가 헌혈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보건단체 상호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동일 대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업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제작소 직원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자궁암 자기 채취기 소요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일본의 수요 추세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제작소 견학을 요청하였으나 “요로시 고자이마스”를 연발할뿐 어름어름 미루더니 끝내 못 보고 왔다.

오후에는 일정표대로 세포진 검사실에서 니시마사 실장이 지도하는 표본염색·검경·판독실습을 하고 별도로 시간을 내어 검진차량을 포함한 각종 의료장비의 수원사례와 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하였다.

저녁에 나고야 지방 T·V에서 오도꼬노세꾸(湯の節句)라는 민속놀이를 방영하는 데 훈도시 차림에 수천명이 나신의 응비를 자랑하는 듯 편을 갈라놓고 흙탕물 속에서 물을 퍼부으며 밀고 당기는 괴태를 부리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러졌다.

연수 3일째, 아이찌겐 에나 고등학교(展知縣惠郡高等學校)의 대사성 질환 검사차 야스오카 부장과 같이 연구소를 8시에 출발하여 나고야 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장장 100km를 달렸다.

일본은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인구밀도가 계속 높아지므로 주거지역이 넓게 퍼져있고 공장도 잘 발달된

도로망을 따라 적절히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어디를 가나 그들이 처한 불리한 자연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노력하여 개발한 흔적이 역력하였다.

가로수도 억제 제배하여 자주 일어나는 지진과 해양성 기후에 견딜수 없게 하였고 수종개량을 오래 전에 실시하여 관상수가 도시 농촌 산야에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다.

에나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인데 지방 도시의 정원 관계상 공학인 줄 알았는데 일본에서는 남녀공학이 많으며 학생들이 모두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검진반은 이미 도착하여 9시부터 검진을 시작하였고 양호교사도 돕고 있었다. 대상은 1·2년생 700명 혈압측정과 빈혈·콜레스테롤 검사를 위한 채혈이었다.

일본은 학교 보조법에 의하여 제반 건강 검진을 학교장의 재량으로 실시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므로 모든 수수료는 문부성 예산으로, 고등학교 이상은 수혜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애써 협의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폭넓은 검진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위정자들과는 사과의 차원이 현저히 다름을 목격하였다.

필자는 예방의학 사업의 실무자로서 이 고질적인 의식에 봉화를 일으켜 우리의 사업 황무지를 반드시 개척해야겠다는 의지를 굳혔다.